4.6 영문학술지(JMB) 편집 운영체계

가. 전자(Online) 투고시스템

JMB는 2002년 이후 우편이나 e-mail을 통한 논문 투고를 받지 않고 완전히 자동화된 전자투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JMB 투고 시스템은 2006년 개편되어 국내 출판사인 Inforang 사에서 영문 전자투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전자투고시스템은 국제적인 유명 출판사의 투고 시스템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없는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편리한 시스템으로 2018년부터 2년간 이전 시스템의 진단을 바탕으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한 후, 2020년 JMB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우선, JMB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논문 및 데이터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컨텐츠 구성 및 시인성, 학술지 서비스 기능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리뉴얼 하였다.

나. 논문 심사 및 게재 과정

투고된 논문은 편집국, Manuscript Editor의 논문 상태 및 편집 점검 과정을 거쳐 Deputy Editor에게 전달된다. 편집 위원장 및 편집소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3 – 4명의 분야별 Deputy Editor는 투고된 논문의 분야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전문 편집위원을 선정해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선정된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내용에 따라 최적의 전문성을 가진 심사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선정하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수정, 게재불가를 판정한다. 논문의 심사 과정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blind로 진행된다. 2010년까지는 게재 판정으로부터 인쇄본이 나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2010년 부터는 이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2013년에는 게재 판정된 논문들의 인쇄본이 출판되기 전에 Doi 가 부여되어, on-line version이 공개되는데 PubMed에 'ahead of print' 형식으로 XML 파일 업로드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최종본 출간까지의 공백기를 줄이고 해당 논문의 인용 기회를 확대,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